

2차 기원심 목회자 리더십 프로그램

한국교회 목회리더십의
윤리적 성찰과 발전을 위한 모색

- 일시 _ 2008. 12. 15(월) 오후 4시
- 장소 _ 명동 청어람 3실

목차/ 순서

2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신포럼

- 사 회 : 황 영 의 목사(운영위원장, 서울남교회)

- 발제 1
 목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목회리더십
 - 노 영 상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 4

- 논찬 1 - 정 현 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3

- 발제 2
 목회자의 윤리와 교회의 선교적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
 - 최 형 근 교수(서울신대 선교학) 24

- 논찬 2 - 김 현 진 목사(사قم의교회) 37

- 종합토론

- 기윤실 목회자리더신포럼 소개

주제 발제 1

2차 기운실
목회자리더십포럼

노영상 교수
장신대 기독교윤리학

목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목회리더십

<목차>

- 들어가는 말

1. 목회윤리란 무엇인가?

- 1) 목회와 목회윤리
- 2) 윤리란 무엇인가?
- 3)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로서의 교역윤리(ministerial ethics)
- 4) 목회윤리의 최근 동향

2. 목회자의 개인적 윤리: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목회자

- 1) 목회자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문제
- 2) 목회자의 금전문제
- 3) 목회자의 성윤리
- 4) 목회자의 권위주장과 다른 교역자들과의 관계

3. 교회 내적 목회에서의 윤리: 목양윤리(shepherding ethics)

- 1) 설교와 윤리
- 2) 목회상담과 심방의 윤리
- 3) 교회행정과 윤리

4. 교회 외적 목회윤리: 선교윤리

- 1) 복음전도와 목회윤리
- 2) 세상 공동체를 위한 목회윤리

5. 목회자의 윤리교육을 통한 목회리더십 강화

- 1) 목회윤리 강화를 위한 신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 2) 목회윤리와 영성훈련

6. 목회윤리 규정(code)을 위한 제안

7. 한국교회와 목회윤리

- 들어가는 말 -

오늘의 한국교회의 불신의 원인이 목회자에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많은 통계들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목회자의 윤리적인 자질문제가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다. 이에 오늘의 목회현장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목회 윤리의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오늘의 목회 현상에서의 윤리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교육과 그를 위한 윤리적인 지침으로서의 윤리규정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작은 글이 한국교회의 목회윤리를 증강시키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목회윤리란 무엇인가?

1) 목회와 목회윤리

목회에 대한 정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구이다. 또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맡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기독교 구원의 모습을 통전적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의 일차원적인 구원이 아니며, 영과 육의 구원, 하늘과 땅의 구원,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향한 교회의 목회는 이와 같은 통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영과 정신에 대한 보살핌, 인간의 육적인 안녕과 사회의 정의에 대한 관심, 또한 작금의 생태적 문제에 대한 추구 등, 교회의 목회는 이러한 여러 방향의 문제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살림으로서의 통전적 구원의 모습을 향한 교회의 목회 내용은 전통적으로 보통 다섯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복음의 전도와 선포(헬라어로 케리그마),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 상담과 교육(디다케), 예배(레이투르기아), 사회봉사(디아코니아)의 다섯 영역이다. 이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은 다섯 영역에서 맡은 바의 일을 감당하는 전문가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¹⁾ 이러한 모든 영역의 일들은 각각을 위한 윤리적 사고가 요청된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인간의 도덕적 경험을 반성하는 윤리는 깊이 연관된다. 사회봉사와 사회참여의 문제에 있어서의 윤리적 반성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특히 목회상담을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윤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도들이 그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목회자들에게 문의하여 올 때, 목회자는 그에 대한 영적이며 실제적인 답변들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도 다양한 윤리적인 전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회윤리(pastoral ethics)라는 용어는 교역윤리(ministerial ethics)나 성직자 윤리(clergy ethics)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교역(ministry)은 목회(pastorate)란 용어보다 폭넓은 의미를 갖는다. 목회엔 설교, 예

1) 박근원 교수는 목사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달(communication)의 기능과 목양(shepherding)의 기능과 조직(organizing)의 기능이다. 전달의 기능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설교, 예배, 교육, 전도 등이 이것에 포함된다. 목양의 기능은 신자들의 영육 간의 전인적인 문제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목회, 심방, 상담 등이 이것에 포함된다. 조직의 기능은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교회행정, 조직관리, 인사관리, 평신도관리, 선교의 추진 등이 이것과 연관된다.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사회, 1993), 28.]

배, 심방, 상담 등이 포함된다. 교역은 이러한 목회의 개념과 함께 복음전도, 사회봉사, 역사참여를 포괄하는 선교라는 개념을 그 속에 담고 있다. 곧 교역(ministry)이란 목회 또는 목양과 선교를 합한 개념이다.²⁾ 그러나 최근에는 설교학, 예배학, 목회상담학, 교회행정학 등이 분화되면서, 개신교에서는 목회학이 목회상담을 특별히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천주교는 목회학이란 말을 개신교와 다르게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을 천주교는 목회학이란 용어로 표현하는 반면, 개신교는 목회학을 목회상담이란 좁은 의미로 취급한다. 개신교는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을 교역학이란 말로 표현하는 바, 개신교에서 교역학은 천주교에서의 목회학과 같은 뜻이다. 또한 개신교에선 교역윤리(ministerial ethics)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가톨릭은 목회윤리(pastoral ethics)란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본 논문에선 목회학이란 의미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목회윤리를 교역윤리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2) 윤리란 무엇인가?

머클렌던(James Wm. McClendon, Jr.)은 다음과 같이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였다. 그 윤리와 도덕은 이론과 실천으로 연결된다. 윤리는 도덕에 대한 연구이며, 도덕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덕과 사악에 대한 관심에서 조망된 인간의 현실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윤리는 도덕, 곧 행동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이론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이런 각도에서 기독교윤리라는 말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³⁾ 도덕이 행동 그 자체를 다룬다면, 윤리는 그 행동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어떤 도덕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재정의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는 도덕에 대한 학문(the science of morality)이라 할 수 있다. 스타프(Henry Stob)은 이러한 윤리의 영역을 셋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이며 인격적인(personal) 영역과 인간 상호간의(interpersonal) 관계에서 야기되는 영역 및 사회적인(social) 영역의 세 부분이다.⁴⁾ 이에 필자는 이와 같은 기독교 윤리적 구조 속에서 목회윤리의 입장들을 검토하려 한다. 이에 우리도 목회윤리를 세 가지의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개인적 윤리, 교회 내에서 교인과의 관계 차원에서의 목양윤리, 그리고 교회의 대외적 복음전도 및 사회봉사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선교윤리의 세 가지이다. 그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가치로서의 선(good)의 문제,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의 인격형성의 문제, 윤리적 규범(norm)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원리와 법들을 특정한 맥락(context)에서 적용하는 문제 등이 검토될 것이다.⁵⁾

3)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⁶⁾로서의 교역윤리(ministerial ethics)

전문직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 소명(calling, vocation)과 전문직(profession)과 직업(occupation, career)이란 용어들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⁷⁾ 먼저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이웃에

2) 이상운, 『목회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국, 1996), 15.

3) James Wm. McClendon, Jr., *Systematic Theology: Ethic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28-29.

4) Henry Stob, *Ethical Refle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8), 3-6.

5) 트랄(J. E. Trull)은 이 세 가지의 윤리적 과제를 각각 선한 사람이 되는 것(being good)으로서의 인격의 윤리(the ethics of character), 선을 행하는 것(doing good)으로서의 행위의 윤리(the ethics of conduct), 선하게 사는 것(living good)으로서의 온전한 윤리(the ethics of integrity)라고 하였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목회자의 인격적 준비를 말한다. 행위의 윤리는 도덕적 가치(value)와 의무(obligation)의 문제를 다룬다. 온전한 윤리란 도덕적 이상(ideal)과 비전의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선 도덕적 인격(character), 행위(conduct), 이상(ideal)의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Joe E. Trull and James E. Carter, *Ministerial Ethics: Being a Good Minister in a Not-So-Good World*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3), 42-62.]

6) John Macquarrie, ed., *A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London: SCM Press, 1967), 276-277.

7) Joe E. Trull and James E. Carter, *Ministerial Ethics*, 22-23.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직업은 보다 이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추구한다. 직업은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한다. 전문직은 그를 위한 마땅한 지식과 책임을 요구한다. 그는 그의 지식을 인간공동체에 봉사하는 방향에서 사용해야 한다. 보통 사회학자들은 이 전문직이란 용어를 정의하며, 1) 전문적인 교육(education)에 따른 능력(competence)의 구비(딤후 2:15, 엡 4:11-12), 2) 공공에 봉사(service)하는 것에 대한 소명(고전 13장)과 헌신(롬 1:11-17), 3) 윤리적 규정(ethical code)을 통한 자기 규제(딤전 3:1-7) 및 4) 책임을 수반하는 자율성(autonomy)이라는(요 13:1-16) 네 가지 특징을 언급한다.⁸⁾

전통적인 학문적 전문직은 신학과 법학과 의학이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넓혀, 보통 의사, 변호사, 목사, 사업가, 교사, 공직자, 언론인, 회계사, 상담가 등의 직업인들을 전문직(profession) 종사자들과도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지식과 기술 및 능력 가지고 있으며, 남들을 위한 남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여타의 직업인들과는 다른 나름의 독특한 윤리를 필요로 하는바, 보통 이러한 윤리를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라 부른다. 의사라는 전문직 윤리로서의 의료윤리(medical ethics), 사업가를 위한 기업윤리(business ethics), 목회자를 위한 목회윤리(pastoral ethics) 등,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꾸준히 되어왔다. 이런 전문직 윤리 중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의료윤리 또는 생명윤리(bio-ethics)로서 1960년대로부터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나름의 독특한 윤리적인 자세나 에티켓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의사나 목회자들은 그의 환자나 교회신자들의 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과 상담을 한 상대의 약점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문인으로서 피하여야 할 일이다. 또한 전문인들은 그의 고객과 성적인 관계에 빠지기 쉽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깊은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선 쉽게 양자가 정서적으로 밀착되기 쉬운 바, 이에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고객과 성적인 불륜에 빠지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에 착목하여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사나 의사 등이 너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질 경우, 그들의 환자나 학생을 위한 일은 상당한 왜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문직종의 사람들은 자신과의 친밀도에 따라 그들의 고객을 다루어서도 안 된다. 법률가가 그의 친척이라고 봐주고, 그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해된 변호나 판결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완전 개방하여 노출해서는 안 되며, 모든 판단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신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는 이러한 전문인들을 조직적으로 육성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대학에서의 수업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을 거치고 있다.

목회의 일은 일종의 전문직으로서, 나름의 전문직 윤리가 요청된다.⁹⁾ 목회자는 여타의 전문직종 종사자들과 같은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목회자라는 전문성에 의존하는 독특한 윤리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 전문직 가운데 목회직만큼 인격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은 없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엔, 그의 의료기술이 그의 인격보다 그를 신임케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목회자에

8) 위의 책, 28, 38. 전문직으로서의 목회자의 책임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각각의 특징에 추가하였다.

9) 레벡((Karen Lebacqz)와 같은 사람은 목회자의 직을 일종의 전문직(profession)으로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전문직은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 강조되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character)에 의해 강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의사를 그의 인격에 의해서라기보다 우선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의거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Karen Lebacqz, *Professional Ethic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64-65.]

게 있어서는 그의 목회적 기술보다, 그의 도덕과 인격이 신뢰에 더 중요하다. 교인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그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목회를 하기 힘들다. 오늘날의 시대는 전문직 윤리의 위기의 시대이다. 오늘날의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이전과 같이 공공에 대한 봉사의 정신에 투철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다. 또한 오늘날 문화의 세속화, 다원화, 상대화의 경향은 전문직의 권위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전문직의 자긍심도 많이 손상하였다. 이에 전문직 윤리를 오늘날의 시대에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목회윤리의 최근 동향

주요한 목회윤리에 대한 참고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하몬(Nolan B. Harmon)의 『목회의 윤리』(1928),¹¹⁾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교회와 그것의 교역의 목적』(1956),¹²⁾ 리크(Darrell Reeck)의 『전문직을 위한 윤리: 기독교적 전망』,¹³⁾ 브라우닝(Don S. Browning)의 『종교윤리와 목회상담』(1983),¹⁴⁾ 레백(Karen Lebacqz)의 『전문직 윤리: 힘과 역설』(1985),¹⁵⁾ 로우즈(Lynn N. Rhodes)의 『공동의 창조: 교역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전』(1987),¹⁶⁾ 노이스(Gaylord Noyce)의 『목회윤리』(1988),¹⁷⁾ 본디(Richard Bondi)의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기: 목회실천을 위한 윤리』(1989),¹⁸⁾ 위스트와 스미스가 공저한 『목회윤리』(1990),¹⁹⁾ 라헤이(Tim LaHaye)의 『목회자가 타락하면』(1990),²⁰⁾ 트럴(Joe E. Trull)과 카터(James E. Carter)가 쓴 『교역윤리: 그렇게 좋지 않은 세상 속에서 좋은 교역자가 되기』(1993),²¹⁾ 채피(Paul Chaffee)의 『책임있는 리더십: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한 자료들』(1993),²²⁾ 스위트랜드(Kenneth L. Sweetland)의 『목회자의 숨겨진 세계』(1995),²³⁾ 시스크(Ronald D. Sisk)의 『살아남는 교역』(1996),²⁴⁾ 피어스(Burton Pierce)가 편집한 『교역윤리: 성령으로 충만된 지도자를 위한 안내서』(1996),²⁵⁾ 그리고 가톨릭 계통의 학자인 굴라(Richard M. Gula)가 저술한 『목회적 교역에 있어서의 윤리』(1996),²⁶⁾ 피어스의 『교

10) "Major Book Reviews: *Recent Books on Ministerial Ethics*," *Interpretation* (Oct. 1991), 406-414에는 최근 목회윤리에 관한 주요한 책들의 서평이 들어 있다.

11) Nolan B. Harmon, *Ministerial Ethics and Etiquette*, second revised edition, 홍정수 역, 『목회의 윤리』(서울: 월간목회사, 1978). 이 책은 1928년에 처음 출간되었으며, 개정판은 1950년에 나온 바 있다.

12) H. Richard Niebuhr,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New York: Harper, 1956).

13) Darrell Reeck, *Ethics for the Professions: A Christian Perspectiv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14) Don S. Browning, *Religious Ethics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15) Karen Lebacqz, *Professional Ethics: Power and Paradox*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16) Lynn N. Rhodes, *Co-Creating: A Feminist Vision of Minist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17) Gaylord Noyce, *Pastoral Ethic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the Clergy*, 김종일 역, 『목회윤리』(서울: 한국장로교출판국, 1996).

18) Richard Bondi, *Leading God's People: Ethics for the Practice of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19) Walter E. Wiest and Alwyn A. Smith, *Ethics in Ministry: A Guide for the Professional*. 강성두 역, 『목회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0) Tim LaHaye, *If Ministers Fall, Can They Be Restored?*, 황승균 역, 『목회자가 타락하면』(서울: 도서출판 생명의 샘, 1992).

21) Joe E. Trull and James E. Carter, *Ministerial Ethics: Being a Good Minister in a Not-So-Good World* (Baptist Book Store, 1993).

22) Paul Chaffee, *Accountable Leadership: Resources for Worshipping Communities* (San Francisco: ChurchCare Publishing, 1993).

23) Kenneth L. Sweetland, *The Hidden World of the Pastor*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24) Ronald D. Sisk, *Surviving Minist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1997). 시스크는 이 책에서 목회윤리의 실제적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룬다. 먼저는 제시장적 사명으로서의 목양의 윤리이며, 둘째는 예언자적 사명으로서의 선교의 윤리이다. 목양의 윤리에는 설교와 교육과 상담의 윤리 등이 포함되며, 선교의 윤리엔 복음전도와 사회적 봉사를 위한 윤리가 포함된다.

25) Burton Pierce and Stanley M. Horton, ed., *Ministerial Ethics: A Guide for Spirit-filled Leaders* (Springfield: Gospel Pub. House, 1996).

26) Richard M. Gula, *Ethics in Pastoral Ministry* (New York: Paulist Press, 1996).

역윤리: 영적으로 충만한 지도자를 위한 안내서』(1996),²⁷⁾ 및 최근 나온 책, 키넨(James F. Keenan)이 편집한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실천하라: 목회자와 교역자와 그들의 회중의 삶에 있어서의 덕과 윤리와 힘』(1999)²⁸⁾ 등이다. 또한 박근원 교수의 『오늘의 목사론』에는 목회자의 윤리관이 포함되어 있다.²⁹⁾ 이상에서 보듯 목회윤리에 대한 책들은 주로 80년대 후반에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다.³⁰⁾ 목회윤리를 다룬 책들은 크게 세 가지 분야들로 구분된다. 먼저는 목회상담(counseling) 시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 책들이다. 다음은 목회에서의 여러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한 각각의 지침을 다룬 하나의 안내서(manual)와 같은 책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책들 중에, 목회자의 전문직(profession)으로서의 특징을 말한 후, 그러한 전체적 구조에서 각각의 문제들의 윤리적 방향을 신학적인 입장에서 조망한 책들도 있다.³¹⁾

필자는 목회윤리를 서술함에 있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³²⁾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목회자의 개인적 삶(personal life)에 대한 문제, 교회(congregation) 내적인 목양(shepherding)에서 비롯되는 목회윤리의 문제, 그리고 교회 외적인 면에서 야기되는 윤리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교회 외적인 문제에 따른 목회윤리에 대한 설명에서는, 주변 공동체(community)를 위한 사회봉사와 연관된 목회자의 윤리적 입장을 정리하였는바, 크게 선교적 영역에서의 목회윤리 내용을 취급하였다. 필자는 위의 순서에 의거 목회자의 윤리를 서술하였으며, 마치는 부분에 목회자윤리 규정(code)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2. 목회자의 개인적 윤리: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목회자

목회라는 전문직의 일을 위해서는 나름의 인격적 준비가 요청된다. 이러한 준비는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남들에 대한 봉사 및 사회를 위한 헌신의 바탕이 된다. 목회자의 개인적 인격완성을 위한 기본적 기준을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십계명의 후반부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등의 중요한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는 바, 목회자는 또한 이러한 십계명에 나타난 명령의 내면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은 사탄이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은 성(sex)과 돈(money)과 교만(pride)이라고 하였다.³³⁾

1) 목회자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문제

법률가나 의사나 상담가 등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이 신

27) T. Burton Pierce, *Ministerial Ethics: A Guide for Spirit-Filled Leaders* (Springfield: Logion Press, 1996).

28) James F. Keenan and Joseph Kotva, ed., *Practice What You Preach: Virtues, Ethics, and Power in the Lives of Pastors, Ministers and Their Congregations* (Franklin: Sheed and Ward, 1999).

29)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30) 목회윤리에 대한 고전적인 책으로,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New York: Harper, 1956)가 있다.

31) 특히 스위트랜드(Kenneth L. Sweetland)의 책은 목회윤리에 연관된 여러 사례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32) 이 같은 목회윤리의 전체적인 구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Joe E. Trull & James E. Carter, *Ministerial Ethics: Being a Good Minister in a Not-so-good World*이다. 그들은 이 책에서, 목회윤리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3장 목회자의 개인적인 삶 (the minister's personal life) 4장 목회자와 교회 (the minister's congregation) 5장 목회자와 동료와의 관계 (the minister's colleague) 6장 목회자와 공동체 (the minister's community) 7장 목회자 윤리규정의 일레 (a ministerial code of ethics)

33) *Time* (May 28, 1990), 13. 여기서 교만이란 목회자가 권력(power)을 탐하고 권력지향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뢰성이다. 목회의 일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목회자의 중요한 윤리적 자질 중의 하나는 목회자의 정직함에 바탕을 둔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없는 목회자는 성직을 수행하는 데 많은 난관을 갖게 된다. 신뢰성이 없으면, 성공적인 상담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도 상대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특히 상담 시의 내용을 비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정보들을 여기저기 누설하는 것은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둘째로 교회의 여러 공적 문서들에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을 세례교인으로 증명해준다거나, 자신의 교인이 아닌 사람을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 증명서를 떼어주는 행위 등은 목회자의 신뢰성을 상당히 실추시킬 수 있다.

2) 목회자의 금전문제

금전상의 문제는 크게 신뢰성의 문제에 포함되기도 하나, 편의상 독립해서 다루었다.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손상을 가져오는 일에는 성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금전적인 문제에서의 윤리성은 목회자의 자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 목회자는 금전상의 문제에 있어 두 가지 면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는 교회재정에 대한 문제이다. 목회자가 교회재정을 장악하여, 그것의 운영상태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문제를 독재적으로 관할하거나, 그것의 운영을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목회자는 교회의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정확한 회계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조직적 체계 속에서 교회의 재정을 서로 논의하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투명한 재정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목회자는 금전상의 지나친 욕심을 갖아서 안 된다. 돈과 부를 지나치게 추구한다거나,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한다면,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총회는 어느 정도 목회자의 봉급규정을 등급에 따라 정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의 사치 또한 성직자로서의 인격을 손상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직업별 경제수준으로 볼 때,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별로 윤택한 편이 되지 못한다. 이에 목회자의 사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의 가난 때문에 발생하는 금전에 대한 유혹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총회는 목회자가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재정을 개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경우 노회적 차원에서 각 교역자의 생활보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목회자가 이중직업을 갖는 문제이다. 한 직장에 다니며, 또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한 직장과의 계약에 대한 얼마간의 파기이다. 예를 들어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또한 현대라는 직장에도 다닌다면, 그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와 계약을 하고 목회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의 봉급으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이다. 이에 가능하면 목회자들이 이중의 직업을 갖지 않도록, 교단 차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장로교회는 일정 한도 이하의 봉급을 받는 목회자들을 위해, 최저봉급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목회자가 교회의 일만으로 충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세상적 직업을 다시 갖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영적 생활이나 교회를 위해 손해가 될 것이다. 특히 목회자나 목회자의 사모가 물건세일이나, 보험세일과 같은 직업을 갖는 것은 목회자의 영적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³⁴⁾ 그렇게 할 경우, 목회자의 교인과의 관계는 심각히 왜곡될 수 있다. 그런 목회자의 눈에는 교인이 하나의 목회적 돌봄의 대상으로 보이기보다는, 세일의 대상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34) 게이로드 노이스, 『목회윤리』, 133.

세 번째로 고려해 볼 금전상의 문제는 심방을 하였을 때나, 주례 및 장례 등을 집행하였을 때, 받는 목회자의 사례금에 대한 것이다. 어떤 성직자는 행사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또 다른 성직자는 비교인으로부터만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직의 보조적인 지원금으로 사례비 받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 어떤 목회자들은 받은 사례금을 교회재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른 목회자는 사례금 수수료를 정하여 명문화하는 경우도 있다.³⁵⁾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일까? 먼저 확실히 받지 않아야 할 경우들부터 정리하여 보자. 아주 가난하여 사례금을 낼 정도의 여유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³⁶⁾ 또한 지나치게 많은 사례금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양하는 것이 좋다. 마지못해 사례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는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목회자가 그러한 행사 등을 주관하는 것을 하나의 봉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과렴치한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또한 사례금을 명문화하여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 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예들이 아닐 경우, 우리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받은 사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기 개인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며, 교회를 위한 일 및 자선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겠다. 그것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봉급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그러한 사례금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쓰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봉급도 충분하고 받은 사례금도 많을 경우, 그것은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한 일에 쓰여질 수도 있겠다. 목회자는 그러한 여분의 사례금을 현금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타 교회에서 설교하였을 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대부분의 타 교회에서의 설교는 본 교회의 설교와 중복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목회자는 그 예배 시간에 본 교회에서 설교를 할 의무를 지나는 바,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고 별도의 사례금을 그곳에서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세금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보자. 목회자는 세금을 내야하는가 아니면 안 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왔다. 사실 목회의 직책은 봉사의 직이며 성직이므로 여타의 직과 같은 것은 아니다. 또한 목사의 사례비도 여타의 직종의 봉급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목회자도 국가에 대한 세금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이렇다. 목회자의 봉급에도 다른 직업인들의 봉급과 같은 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목회자의 독특한 임무를 고려하여, 얼마간의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목회자는 세금을 낼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금을 낸 경우에는 은퇴 후 그에 상응하는 많은 연금으로서의 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을 내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과 다른 차별적 혜택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세금정책이라 생각한다.

3) 목회자의 성윤리

윌버 스미스(W. Smith) 목사는 목회자의 간음을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³⁷⁾ 목회자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타의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성적인 면에서의 유희를 많이 받게 된다. 특히 목회자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편으로 착각하며 목회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여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남다른 조심을 하여야 할 것임과 동시에, 평소 이에 대비하는 철저한 인격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드거(G. Lloyd Rediger)는 목회자의 10% 정도

35) 위의 책, 135.

36) 하몬(Nolan B. Harmon)은 결혼식을 주례할 경우엔 사례금을 받되, 장례식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Nolan B. Harmon, *Ministerial Ethics and Etiquette*, 50.]

37) 팀 라헤이, 『목회자가 타락하면』, 81.

가 목회 중 잘못된 성관계에 연루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⁸⁾ 우리 나라의 사정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심각한 성적 관계도 문제이지만, 우리는 목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상담실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유리창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심방 시 여자 전도사 및 여신자들을 대동하고 여자가 홀로 있는 집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심방이나 상담 중, 이성의 피상담자의 감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³⁹⁾ 아울러 목회자는 평상시 성욕을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여자 교인들과 악수하는 문제, 여자교인들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 목회자가 포르노그라피에 심취하는 것 등의 행동은 삼가하여야 할 것들이다.

여러 가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심각한 성적인 타락에 빠질 때가 있다. 이 경우 교회는 그런 문제를 윤리적이며 회복(restoration)적인 차원에서 잘 다루어야 한다. 먼저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회복위원회를 만들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위원회는 그러한 추문이 왜곡되어 더욱 요란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치리기준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리라 본다. 그러한 치리기준은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긴 목회자는 자신의 지도력 손상 및 교회의 유익을 고려하여, 그 교회나 도시를 일단은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부분의 책들이 언급하고 있다. 타락하였던 목회자의 강단복귀의 문제는 회복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진행될 것이다. 강단 복귀와 복권을 위해 약 3년 간의 근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책들의 견해이다. 물론 그 기간은 성적인 타락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강단을 완전히 복귀하기 전, 목회자에게 유사한 목회의 일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목회자가 회복된 후에도, 이전의 목회지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역을 위한 회복(restoration) 절차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⁴⁰⁾ 1) 참으로 회개하였는지 확인하라. 2) 목회자의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와라. 3) 목회자의 결혼생활의 갱신을 도와라. 3) 목회자가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라. 4) 유예 기간을 확실히 정하라. 5) 회복 예배를 가지라. 6) 자신의 목회지는 다른 대리자가 목회하도록 한 후, 작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며,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계속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감독해 줄 것을 자청하라. 감독은 목회자의 아내, 회복위원회의 엄선된 영적 지도자, 그리고 동료목회자들이 맡게 될 것이다. 8) 다른 도시에서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교회가 보조금을 주어 지원하는 것이 기대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타입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보통은 중년의 목회자가 빠지기 쉽다. 자기의 소명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치 못하는 사람, 다른 동료들과 격리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더 빠지기 쉽다는 것이 조사된 바 있다.⁴¹⁾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타입

38) G. Lloyd Rediger, "Clergy Moral Malfeasance," *Church Management-The Clergy Journal* (May/June, 1991). J. E. Trull and J. E. Carter, *Ministerial Ethics*, 81에서 재인용함.

39) 프로이드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면, 이것은 보통 감정전이(transference)라 불려진다. 감정전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경우로서의 전이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키는 것으로서의 역전이(countertransference)이다. 이러한 전이에는 긍정적 감정으로서의 전이와 부정적 감정으로서의 전이가 있는 바, 전이에는 애정, 따뜻함 등이, 후자에는 분냄, 거절 등의 감정표현이 포함된다.

40) 팀 라헤이, 『목회자가 타락하면』, 211 이하.

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신이 사랑 받을 것과 이상화되는 것을 바라며 목회를 하는 사람, 그러나 자신의 교회로부터의 낮은 반응에 실망한 사람, 목회상담 시 젊은 여성이 왔을 경우 그에 매혹되는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다.⁴²⁾ 또한 성공과 권력 추구적이며, 자신의 남성적 힘을 자랑하려는 사람,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성적 유혹에 빠지기가 용이하다. 평소 성적 문제에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설교 시에는 성적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완고한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목회자는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쉽다. 목회자의 사모가 목회자에 비해 여러 면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여자와 사귀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목회자의 가정이 튼튼하지 못할 때, 목회자는 이러한 유혹에 더 취약하다.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일 것을 성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적한다(딤후 1:6). 이에 목회자의 이혼이나, 동거, 이혼한 여자와 재혼하는 것 등, 목회자의 가정적 요소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목회자의 권위주장과 다른 교역자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윤리에 있어 중요한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부당한 권위(authority)에 의 주장이다. 물론 목회자는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나름의 권위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합당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연히 부리려고 하는 권위주의에 있다. 권위주의적이며 독재적인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은 곧잘 자신의 섬기는 위치를 망각한 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또한 자기의 하는 일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목회자는 공공연한 권위를 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일종의 콤플렉스와 같은 것으로, 이럴 경우 목회자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필요 없는 위세를 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의 중요한 특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자기 밑에 있는 교역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 대해 지나친 권위를 주장한다. 이러한 권위에 대한 지나친 주장은 명예욕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유지되려면 나름의 허울적 위치가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에 심취하게 된다.

오늘의 목회자의 권위는 이전의 시대와 같은 맹목적인 그러한 권위가 아니며, 목회자의 인격과 도덕성에 의거한 권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동이 많은 시대에서는, 새로운 윤리적인 이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이에 목회자는 그러한 여러 윤리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신자들에게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요청된다. 목회자의 권위는 그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지, 겉보기의 위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히 13:17).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와의 관계, 전임자와 후임자와의 관계, 타교단 목회자와의 관계 등, 목회자 사이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윤리 문제에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에 있어 한국교회는 교회 수와 그에 따른 목회자 수가 지나치게 많음으로써, 목회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 남을 밟지 않고는 자신이 설 수 없는 목회자 사회가 되었다. 이에 교회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데 있어서의 방안, 목회자의 수효를 억제하는 것, 목회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는 방법 등, 목회자 사이의 비인간적 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회자들은 주변의 목회자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동료의

41) *Newsweek* (28 August 1989), 49.

42) 위의 책, 48.

식 속에서 서로를 위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교회 내적 목회에서의 윤리: 목양윤리(shepherding ethics)

1) 설교와 윤리

설교는 윤리와 관계가 많다. 설교는 설교의 준비에서부터 윤리적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리적인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여야 할 때도 있다. 남의 설교를 사용하는 문제가 설교준비 시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남의 설교를 베껴서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이므로,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설교내용에서 우리 자신의 고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의 준비한 설교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의 어느 책에서 보았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배운 내용들이다. 그것은 상당 부분에 있어 남의 사상과 생각에서 빌려온 내용이다. 문제는 설교를 전체적으로 표절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읽은 설교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나름대로 정리한 후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 설교 준비가 어렵다고 하여, 남의 설교를 표절(plagiarism)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동을 줄 수도 없는 설교가 된다.⁴³⁾ 베끼는 설교에 있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예화를 자기가 경험한 것인 양 사용한다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종종 자신의 신비체험을 가장할 경우가 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으면서도,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가보았다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된 신비체험에 대한 진술들이 목회자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설교 시 우리는 청중의 감정을 조작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설교 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 청중의 감정을 조작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그러한 감정의 조작을 위해선 많은 거짓됨이 동원됨을 알 수 있다.⁴⁴⁾

또한 설교자의 평소의 도덕적 삶이 설교를 듣는 신자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설교자의 도덕적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감화 받기 어렵다. 이에 설교자는 자신의 삶과 말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함이 요청된다. 디도서 1장 5-9절에는 목회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미덕에 대해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케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목회자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강조한다. 자신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다음은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의 설교가 기독교윤리 상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북한의 동족들이 기아로 굶주려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므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설교한다면, 그러한 설교는 윤리 상의 큰 문제를 지니게 된다. 설교자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나름의 시야에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43) Joe E. Trull and James E. Carter, *Ministerial Ethics*, 105.

44) Ronald D. Sisk, *Surviving Ministry*, 125.

2) 목회상담과 심방의 윤리

목회상담은 윤리와 상당한 밀착성을 지닌다. 특히 성도와 상담한 내용에 있어서의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의 문제는 중요한 윤리적 논제이다. 천주교나 동방교회에서는 고백성사가 있어, 비밀보장의 당위성을 제도적으로 장치하여 놓았으나,⁴⁵⁾ 개신교에는 그와 같은 구조가 없어 목회자들이 상담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특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고객들의 비밀에 대해 침묵할 윤리적인 책임을 남과 다르게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한 가치 기준을 어느 정도의 규정된 제도화를 통해 구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회상담에 있어서의 비밀보장의 책임은 모든 상황에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목회자는 상담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니기도 한다. 자기가 지도하는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십대 소녀가 전도사를 찾아와 자신이 곧 자살하려고 하겠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 있어, 그 전도사가 그 소녀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하고, 그만 이 그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대부분의 전도사의 경우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소녀의 마음을 충분히 돌리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도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실을 그들의 부모에게 알리고, 그 소녀로 하여금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목회자가 이성과 상담할 경우,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 의존하게 되며, 이러한 의존감이 성적인 유혹을 재촉하기가 쉽다. 이에 목회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자신의 방비가 허술한 데가 없는지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횟수의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위험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을 위한 윤리상의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낙태나 안락사 및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오는 교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윤리적인 기본 지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목회자는 그러한 발전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연구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가정심방과 병자를 위로하기 위한 병원심방에는, 윤리적인 이슈보다는 일종의 에티켓으로서의 지켜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다. 그러한 목회자의 심방 시의 예의범절에 대해 하몬(Nolan B. Harmon)은 그의 책 『교역윤리와 에티켓』에서 서술한 바 있다.⁴⁶⁾ 장례식 시에도 목회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에티켓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한 예의범절의 문제를 사례 별로 묶어 서술한 책들이 몇 권 나왔으면 싶다. 딱딱한 규정으로 이 문제를 서술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례적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한 에티켓들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3) 교회행정과 윤리

교회행정에 있어 윤리적인 고려가 가장 많이 요청되는 분야는 교회의 재정관리 문제이다. 먼저 신용(trust) 있는 재정관리에 대해 다루겠다. 돈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교회운영상의 재정관리의 문제에 대해 집중하려 한다. 재정의 확보와 지출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이다. 우선 교회는 현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약한 교인들을

45) A. D. 554년 제 2차 종교회의에서 나온 법령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담고 있다. “고해자의 고백을 공개하는 사제는 파문에 처할 것이다.” [케이로드 로이스, 『목회윤리』, 106.]

46) Nolan B. Harmon, *Ministerial Ethics and Etiquette*. 특히 81-105페이지를 보시오.

여러 가지의 말로 현혹하여 현금을 걷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교회가 부당한 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서도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회의 부동산 투기이다. 교회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여, 재정을 확장해 나가는 일을 과연 정당한가? 교회가 바자회를 여는 일, 교회가 복권을 발행하는 것, 교회가 신용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가? 교회는 교회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교회재정의 윤리적인 지출이다. 먼저 교회재정을 낭비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싶다. 교회의 지나친 장식, 불필요한 교회 건축을 하는 경우, 교회의 재정을 오락적인 일에 쓰는 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재정 지출의 예들이 있다. 또한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해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도 많다. 교회는 그들의 지출을 아껴, 그러한 재정으로 사회봉사를 위한 일들에 많은 예산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재정의 운용을 위해, 총회는 하나의 모범적인 재정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⁴⁷⁾ 교회규모에 따라, 세 등급 정도의 재정운용의 범례를 정하여, 교회가 그러한 대체적 기준에 따라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회자의 고용과 해고의 일에 있어 교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다. 보통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목회자를 감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회자들을 고용할 경우에도, 목회자가 자긍심을 손상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된다. 교회는 이런 일들의 처리에 있어, 어떤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 세속 단체만도 못한 교회의 막무가내 식의 고용과 해고의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4. 교회 외적 목회윤리: 선교윤리

1) 복음전도와 목회윤리

자기와 접촉하는 비신자를 교회성장을 위한 가능성 있는 새 신자로만 보는 견해는 위험하다. 인간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태도이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겁증으로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도 문제이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섭섭할 때가 많으십니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정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정신병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런 말들로 상대방을 겁증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모으며, 그들의 복종을 받아내려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교인들을 전도인으로 고용된 자로 보는 견해, 교회를 신문 등에 광고하는 것, 교회성장 및 전도를 위해 경품을 걸거나 선물 공세를 하는 행위, 과대광고식 전도프로그램, 예를 들어 신유의 중, 능력의 중,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의 목회에 대한 광고, 세뇌의 방식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 극단적 예찬주의, 이기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 등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의도는 올바른 것이라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목회자의 양을 흠치는 행위이다.⁴⁸⁾ 다른 교회의 교인을

47)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이러한 재정조례의 준비를 위해 '노회 표준 재무규정 제정(안)'을 금년 들어 만든 바 있으며, 총회재정부 재정통일 업무 추진위원회를 통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예산편성 모형작성'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이러한 예산 모형이 교회의 재정운용에 참고가 되기 바라고 있다. 그 모형은 500명 교인을 가진 교회를 기준으로 만들어 졌으나, 앞으로 1000명과 2000명 교인을 가진 교회를 위한 모형도 만들 예정이라 한다. 또한 총회는 '교회회계 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총회를 거쳐 그 내용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안들의 내용은 본 교단 총회의 홈페이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심방하는 문제에는 세심한 고려가 요청된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등록하러 왔을 경우 목회자는 그 교인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의 도시목회는 이전의 농촌목회와는 차이가 있음도 인정하여야 한다. 이전의 농경사회는 이동인구가 많지 않던 때였다. 그러나 오늘의 도시생활에서는 이사가 불가피하다. 한 교인이 멀리 이사를 한 경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에만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목회자는 그 이사 간 곳의 알맞은 교회를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사를 통해 불가피하게 교회를 이동하게 된 신자를 그 지역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톨릭 교회는 그 신자가 이사하였을 경우, 그들을 이명하여 줌으로써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교단 차원으로 교회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여, 이동하는 교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있어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교회로부터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해당 교회의 존속을 위해 그러한 교인의 이동을 막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 옆의 교회들과 과당 경쟁을 할 때가 많다. 옆의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모두 이단이라고 말하며, 옆 교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태도는 올바르다 할 수 없다.

2) 공동체를 위한 목회윤리

사이더는 그의 책 『복음주의와 사회적 행동』에서 교회의 사회참여 모델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⁴⁹⁾ 1) 먼저는 개인주의적 복음주의(individualistic evangelical)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개인영혼의 구원이 우선적이라고 한다. 이 모델은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2) 과격한 재침례파(radical anabaptist)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사회와 공동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세속적 사회 속에서가 아니라, 그와 분리된 교회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한다. 3) 다음은 주도적 에큐메니칼한(dominant ecumenical) 교회의 모델이다. 기독교의 구원을 개인적임과 동시 사회적인 것으로 말한다. 이 이론은 개인적인 변화와 동시, 세상에 참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하는 것을 또한 강조한다. 4) 세속적 기독교인(secular Christian)의 모델이 네 번째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개인적 영혼구원 문제는 약화시키고, 사회적인 참여로서의 구원만을 강조한다.

사이더는 위와 같이 네 가지 종류의 교회의 사회참여 모델을 설명한 후,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⁵⁰⁾ 사이더는 이것을 성육신적 하나님 나라 기독교(incarnation kingdom Christianity)의 모델로 제시한다. 사이더는 우선 복음전도와 사회적 행동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둘은 통전적 선교(wholistic mission)란 개념으로 통합되는 것이나, 서로 구별될(distinct) 것을 강조한다. 기독교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관심이 예수 이름과 능력 안에서 하나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⁵¹⁾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더는 이 두 가지 중에 사회적 행동보다 복음전도가 더 우선적으로(primary) 수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선적이라 함은 가치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나 자원투여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더는 복음전도가 사회적 행동일 수 없으며, 사회적 행동이 복음전도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둘은 서로 구별(difference)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리(separation)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전도의 일은 사회적 행동의 일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적 행동은 복음전도의 일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복

48) W. E. 위스트, 『목회윤리』, 209 이하.

49) Ronald Sider, *Evangelism and Social Action* (London: Hodder & Stoughton, 1993), 25ff.

50) R. Sider, *Evangelism and Social Action*, 10, 159-186.

51) 위의 책, 186.

음전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고 하여, 사회적 부정의에서 자동적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일을 위해 작성되고 행동을 향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회참여의 행동 중에서도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과 사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런 모델의 의미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과 자신을 또한 구별하셨던 것이다. 그는 이 세상 안에 계셨던 분임과 동시에, 이 세상밖에 계셨던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에 참여하여,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할 책임을 갖는다. 교회의 사회참여는 그 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는 사회봉사(social service)의 차원이다. 다음은 사회정책(social policy)에 관여하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조직(organization)을 만들어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차원의 사회참여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한국교회도 1960년대에 사회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 교회가 사회를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 사회적 목회(social ministry)의 방법에 있지, 교회가 어떤 형태든 사회문제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교회가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비성서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파당적인(partisan) 정치적 행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금하고 있다.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여러 사회단체와 정치단체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달리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다. 목회자는 이런 단체들의 초청에 신중을 기해 응해야 한다. 그런 모든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목회자의 시간관리에 손해가 된다. 이에 목회자는 이런 모임들을 가려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교회가 그런 단체들의 요구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늘의 목회자는 이런 국내적인 사회참여뿐 아니라, 국제적이며 범세계적인 공동체를 변혁하는 일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목회자의 윤리교육을 통한 목회리더십 강화

1) 목회윤리 강화를 위한 신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오늘의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실패하는 주요한 원인들은, 그의 부족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설교능력의 빈약함에 있기보다는, 그의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결함에 더욱 많이 관련된다. 이에 신학교육기관은 신학생들에게 신학적인 지식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도덕적 인격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을 윤리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윤리교육의 회의론자들도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그러한 목회자의 윤리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윤리교육은 일반의 윤리교육과는 달리, 그것이 성서와 성령의 역사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말은 성서만이 목회자 윤리교육의 유일한 자료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판별을 위해서는 나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는 바, 그를 위해서는 다른 자료들이나, 인간의 경험 등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목회자의 윤리교육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는 올바른 윤리적인 판단을 위한 지성적인 교육이다. 다음은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인격적 준비로서의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통해 올바른 윤리적인 습관을 체득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있어 첫 번째의 이성적 판단능력의 함양을 위한 것을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다음으로 인격형성을 위한

일에는 교회공동체의 분위기를 통한 교육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상황을 분석하는 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요청되리라고 본다. 우리는 이를 위한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교과과목들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1) 목회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말하는 성서구절들에 대한 이해 및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성서상의 자격규명에 대한 연구 2) 설교와 상담 등의 일차적 목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 3) 목회자가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내용들에 대한 교육 4) 윤리성 함양을 향한 영성훈련 5) 사회봉사 실천과정을 통해 실제적 봉사의 일을 경험해 보게 하는 일 6) 목회윤리 규정을 교단적으로 만들어 그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는 것 등이다.

2) 목회윤리와 영성훈련

윤리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다. 목회자의 행함(doing)은 그의 존재(being)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에 바른 행위를 위해선 목회자의 인격형성의 중심이 되는,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이 선행되어야겠다. 자기 내실화를 위한 연구와 영성훈련이 요청된다. 전문직 목회자로서의 삶은 영적인 총체적 균형 속에서 보다 잘 수행될 수 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정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성적이며, 정서적이고, 육체적이며, 직업적인 모든 면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면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영성이 바른 방향으로 형성되게 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적 인격의 준비 없이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 또한 자기의 개인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서의 평소의 영성훈련은 그로 하여금 목회적 소명을 보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한다.

목회자의 윤리적 삶은 윤리적인 문제만을 취급함으로써 마무리되지 않는다. 자기의 삶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건전히 이끌어 가지 못하는 사람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윤리적인 면을 강화(empowerment)하기 위해, 목회자의 삶 전반에 대해 강화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러한 목회자 전반의 삶에 대한 강화의 측면으로, 직업개발(career development)이란 개념이 유용하다.⁵²⁾ 먼저는 직업 자체의 수행능력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목회자는 계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에 등한히 할 경우, 자신의 일에 곧 쇠진할 수 있다. 둘째 요소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다. 셋째, 종교적인 면에서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매일의 영성훈련에 노력하는 것은 목회자의 도덕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지역과 이웃과의 관계성에서의 건전한 사회생활이 요청된다.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고립된다거나,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약화하며, 그것은 자기의 윤리적인 삶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운동과 취미생활 역시, 윤리적으로 밝은 삶을 사는 것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직업적인 일만에 몰두하는 사람은 어떤 창의적인 활력을 갖기 어려우며, 나아가 자신의 일에도 쉬 지치게 마련이다. 인간의 윤리적인 삶이란 윤리 그 자체만의 문제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전체적 경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자신의 하는 일과 생활에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할 경우, 인간의 윤리적인 삶은 퇴락하기 마련이며, 이에 우리는 우리의 폭넓은 삶을 통한 직업개발에 진작하여야겠다.

52)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100.

6. 목회윤리 규정(code)을 위한 제안

이러한 목회윤리가 구체화되기 위해서, 각 교단들이 나름의 목회윤리 규정(code)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목회자들만의 논의에 의하기보다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평신도와의 의논을 거쳐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목회윤리 규정은 하나의 도로지도와 같다. 물론 이런 윤리규정이 그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하나의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느끼게 하여, 그들이 도덕적 목회자가 되는 것을 격려한다. 물론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율법화 하여 목회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추진력 있는 목회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에는 많은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⁵³⁾ 이 같은 전문직 윤리규정의 구조(structure)는 다음의 네 가지가 포함될 것이다; (1) 사적이며 개인적인 의무 (2) 고객과 특정한 이해집단에 대한 책임 (3) 동료와 직업에 대한 의무 (4)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⁵⁴⁾

트럴(Joe E. Trull)과 카터(James E. Carter)가 쓴 책 『교역윤리』⁵⁵⁾는 목회윤리 규정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제시한다. 그것은 서문, 자아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동료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교단에 대한 책임, 부목사의 윤리규정, 목회상담자의 윤리규정, 군무를 위한 윤리규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윤리규정은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규범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목회자의 인격형성의 문제를 아울러 다룬다. 또한 캘리언(Carnegie Samuel Calian)은 다양한 전문직에 대한 규정들을 검토한 끝에, 그 규정들의 공통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⁵⁶⁾ 1) 소명과 헌신에 대한 감각 2) 문제의 객관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것 등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 3) 동료와의 협조적 관계 4)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confidentiality) 5) 봉사가 일차적이며, 보수가 이차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6)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의 증진 7) 고객의 권리와 복리에 대한 인식 8)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내용을 출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의무 9) 추천서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신중성 10) 일차적인 수입에서 파생되는 수입에 대한 문제 11) 좋은 시민 됨을 위한 노력 12) 한 사람의 능력과 소명이 한계가 있음에 대한 인정 13) 개인과 그의 인격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세 14) 이해의 갈등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 15) 그의 건강을 유지할 필요성 등이다. 레백(Karen Lebacqz)은 이르기를 이러한 목회자윤리 규정은 지나치게 규범적이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원리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일종의 목회자의 인격적 준비를 강조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⁷⁾ 곧 행동 그 자체보다 행동을 하는 스타일(style) 및 행동의 방법(way)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윤리에서의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하는 것은 전문직 자체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⁵⁹⁾

53) Joe E Trull and James E. Carter, *Ministerial Ethics*, 182-185.

54) 위의 책, 188.

55) 위의 책, 253-256.

56) Carnegie Samuel Calian, *Today's Pastor in Tomorrow's World* (New York: Hawthorne Books, 1977), 104-5. Karen Lebacqz, *Professional Ethics*, 69에서 재인용.

57) 하몬(Nolan B. Harmon)도 그의 책에서 목회자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일(work)이 아니라, 그의 인격(character)이라고 하였다. 목회자의 일은 그의 개인적인 인격에 크게 의존한다. [Nolan B. Harmon, *Ministerial Ethics and Etiquette*, 31.]

58) Karen Lebacqz, *Professional Ethics*, 69-73.

이러한 목회윤리규정의 예가 가톨릭 신학자 굴라의 책에 나타나는 바, 그 책 내에서의 “전문직으로서의 교역적 책임에 대한 규정”(Code of Professional Ministerial Responsibility)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⁰⁾ 그 규정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 신학적 체제, 목회자들의 이상적 인격(character), 전문직으로서의 의무(obligation), 성적(sexual) 행위, 신뢰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이 규정이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목회자가 이 규정을 통하여 하나의 목회에서의 윤리적인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목회윤리의 신학적인 틀을 말하며,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covenant)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목회자는 이런 언약적 책임과 함께 교회공동체 내에서의 전문직(profession)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목회자의 덕과 인격의 문제를 다루며, 거룩성, 신뢰성(trustworthiness), 사랑, 이타주의, 신중함 등의 덕목을 거론하였다. 목회자는 전문직종으로서의 의무(obligation)를 갖는다. 신학적인 능력,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요구에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헌신,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문제, 힘의 사용의 문제 및 책무성(accountability)이 이러한 의무들에 포함된다. 그런 다음 그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었다. 목회자라는 전문직에 대한 신학적 이해, 그러한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에 요청되는 목회자로서의 인격적 준비와 의무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목회의 일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그 규정은 포괄하고 있다.

7. 한국교회와 목회윤리


한국교회의 목회윤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 1) 한국교회의 목회자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각 교단은 나름의 목회윤리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 2) 위와 같은 목회윤리 규정이 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연관된 치리의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이에 총회, 노회, 당회 단위의 각 치리체계를 정비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교회 내의 행위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겠다.
- 3) 목회자의 윤리의식과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의식에 대한 확산을 위해, 각 신학대학은 목회윤리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신학생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 4) 각 교단은 그들의 헌법 및 조례 등에 교회재정에 대한 사항, 목회자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사항, 목회자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장 등의 조항을 만들어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 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지난 몇 년간 목사후보생 훈련원을 세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기 전의 후보생들을 교육한바 있으나, 여의치 않아 그 교육을 멈추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회자들 서로가 도움이 되는 체제로서의 수퍼바이저(supervisor)나 멘터(mentor) 등을 세워 목회의 어려움을 자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 6) 교회의 사회봉사 및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목회자에게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한국교회의 계층구조적인 목회체제의 개선이 요청된다.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 체제보다는 하나

59) 예를 들어 심각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자체 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60) Richard M. Gula, *Ethics in Pastoral Ministry*, 142-152.

의 팀 목회(team ministry)의 체제로 목회자들 간에 상호 협력하여 목회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교회들이 지금과 같이 어떤 제동 장치 없이 무한정으로 경쟁하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네트워크 교회(network church)와 같이,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 8) 마지막으로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목회자의 영적 남용, 교회의 사유화, 성직세습, 권위적 리더십, 교단분열, 물량주의, 성장중독증, 목회자원의 분배문제, 목회자간의 빈부격차, 대외공신력 하락 등의 윤리적 문제들을 한국교회의 맥락에서 위의 논의들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논찬 1

2차 기운실
목회자리더신포럼

정현구 목사
서울영동교회

주제 발제 2

2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

최형근 교수
서울신대 선교학

목회자의 윤리와 교회의 선교적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

I. 들어가는 글

2007년은 한국 개신교 최악의 해였다.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에 이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단기 선교 팀 사태, 대표적 기독교 기업으로 자처하는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사태, 그리고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으로 드러난 목회자들의 박사학위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의 목소리들과 교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들이 수그러들어 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의 소리들이 꺾전에 아직 맴돌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경제침체라는 우울한 분위기의 확산과 더불어 다시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사회는 교회의 게토화와 정치화를 맹렬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드높여 왔으며, 이에 부합하여 공영방송들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점들을 공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넣고 있다(MBC 뉴스 후, SBS 신의길 인간의 길 등). 이러한 제반 현상들이 초래한 결과들은 개신교에 대한 반기독교적 분위기 확산과 교인수의 감소,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안팎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 분석하고 평가하며 대안들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변화의 조짐을 찾지 못하니 그리 쉽지 않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의 문제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에 도달할 힘이 없다는 것이라고 본다. 그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서 나오는 윤리적, 도덕적 청렴성(integrity)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걸 맞는 “삶”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기실 목회자의 리더십이라든가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문제의 기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목회자 윤리를 논하거나 문제점들을 진단할 수는 없다. 오늘날 현대사

회의 제 문제들은 그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단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과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교회와 신학이 추구하는 바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휼하심,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 자신의 본질을 탐구하고 다른 자연세계의 피조물들과 회복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윤리적 상태를 간략하게 진단하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리더십과 윤리가 현 사회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선교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대의 지배문화가 교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회는 그 지배문화의 가치들과 어떻게 타협하고 혼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가 지배문화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대항문화와 대안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대안을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복음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윤리의식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다양한 리서치들은 교회가 양적이며 외형적인 팽창이라는 맨탈리티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목회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들은 영성, 청렴성, 도덕성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성과 청렴함과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나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등 문화 전반에 걸쳐 그 역할모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대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따라서 문화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종교와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윤리적 기준들의 와해현상은 한국이 병든 사회(sick society)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김지방은 최근에 출간한 그의 저서 “정치교회: 권력에 중독된 한국 기독교 내부 탐사”에서 옥한흠 목사의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설교와 다른 몇 편의 설교를 인용하며, 한국교회의 타락과 변질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핵심적 문제이며, 그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다고 진술한다.¹⁾

마가복음 10:35-4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전복의 원리(upside-down principle)에 따라 규정된다. 그 원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역할과는 다르다. 지위와 역할은 문화의 형식이다. 문제는 그 지위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과, 지위가 활용될 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지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²⁾ 특정인이 특정 사회 내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position) 또는 등급(rank)을 지칭하는 구조적 용어인 지위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기능을 지칭할 뿐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나 지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위란 특정 사회가 해당사회에 속한 구성원에게 권리와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사람이 점하게 되는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을 말한다. 주어진 지위 때문에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은 지위의 역동적 측면이다. 지위와 역할이 목회적 리더십과 관련하여 내포하는 함의는 교회의 영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즉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지위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

1) 김지방, 『정치교회: 권력에 중독된 한국교회 내부 탐사』 (서울: 교양인, 2007), 134-152 참조.

2) 찰스 크래프트, 『기독교 문화인류학』, 안영권, 이대현 역, (서울: CLC, 2005), 622.

은 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한 사회와 문화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여하는 지위는 본래적으로 기대를 내포한다. 이것을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라 부르며,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을 역할수행(role performance)이라 부른다.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간격이 좁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그 간격이 넓은 사회일수록 병든 사회이다.

2005년 1월에 나온 한미준과 한국갤럽리서치에서 나온 “한국교회 미래리포트”는 개신교 지도자들의 자질(16.5%)은 천주교(31.8%)와, 불교(21.2%) 지도자들의 자질에 비해 훨씬 부정적으로 나왔다. 또한 목회자들과 관련된 항목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참 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교세의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나왔다.³⁾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처한 현실은 사회문화와의 소통의 단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복음과의 소통의 단절,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약 4:4)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과 관계의 단절이 가져오는 것으로서 세상과의 복음의 소통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견고한 철문만이 출입구로 기능하는 철장(iron cage)과 같은 평면구조의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소통이 단절된 고립된 기관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회 지도자들의 상태(내부적으로는 일반화시켜 말할 수 는 없지만)는 외도하면서도 현재의 아내와는 이혼하기를 거부하면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의식분리”(compartmentalization)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웨이드 굿데일(Wayne Gooddall)은 이러한 의식분리를 “다른 감정의 방을 가지며, 다른 의식의 방을 가지고, 다른 가치의 방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도달한다” 고 주장한다.⁴⁾

록스버그(Alan Roxburg)는 역사적으로 리더십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에서 기독교 초기 기독교 왕국에서의 리더십은 사도적 리더십에서 성직자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리더십은 성직자 중심에서 교사 중심으로, 계몽주의의 리더십은 설교자와 교사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변했다. 최근의 전문가 중심의 리더십 패러다임은 상담가와 매니저와 전문 기술자로서의 리더십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⁵⁾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리더십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기는 것이다(엡 4). 여기서 초대교회의 사도적이며 선교적 리더십을 재발견할 수 있다. 성경적 리더십은 현재의 리더십 모델인 전문가(상담가, 매니저, 전문 기술자)와 같이 신자들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사로서가 아니라, 성육신적인 겸비함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에서 선교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평신도들의 은사들이 활용되며, 새로운 지도자들을 구비하며,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참된 목회리더십은 목회자의 영성과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목회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참된 덕(true virtue)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서 성경적 영성과 품성에서 우리나라는 참된 덕의 실천적 모습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참된 품성(됨)에서 나오는 윤리적 삶(행함)은 자연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으로 드러

3) 한미준-한국갤럽 편,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서원, 2005), 233.
 4) 웨이드 굿데일, 『지도자의 넘어짐과 회복』, 이명희 역, (서울: 순전한 나드, 2008), 50-51.
 5) Alan Roxburg,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God's People for Mission,"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Darrell Guder ed.,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190-198.

난다.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lifestyle)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윤리이지만, 그것을 단순히 이상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목회자들이 해야 할 과제는 최선을 다해 복음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평가는 주님의 몫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다(마 25장). 문제는, 목회자들이 회심의 의미를 깨닫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느냐이다.

III. 교회와 문화

오늘날 현대문화는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가? 어떻게 교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히 목회자들의 리더십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필자는 지난 7월 바른교회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가 복음의 공공성을 상실한 역사적, 신학적, 문화적 뿌리들을 다루었다.⁶⁾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초대교회는 당시의 지배 문화 속의 하위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새로운 대안문화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갱신이 아니라, 사회적 혁명이었다.”⁷⁾ 초대교회가 박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AD 313)에 의해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는 신앙과 구원과 선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면서 개인적인 하늘 체험과 개인구원이라는 이분법적 뒹에 걸리게 되었다. 즉 교회는 역사성의 상실과 종말론적인 긴장을 상실하면서 구원이 개인화되고 교회화되는 중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독교가 국가종교가 되면서 기독교 왕국이 형성되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적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행동을 취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⁸⁾ 대신 헬레니즘의 합리성과 로마의 기술적 실용주의의 결합이라는 고전적 교회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⁹⁾

비록 종교개혁이 중세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라는 가치를 내걸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혁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전통의 권위와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세속화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동참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개인주의는 계몽주의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혼합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일종의 “자아운동”(self movement)으로 변질시켜 놓았다. 즉 종교개혁의 개인주의는 인생의

6) 최형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공적복음의 회복: 역사적, 신학적, 문화적 고찰,” 2008. 7.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 세미나, 미간행 논문.

7) 하워드 스나이더, 『참으로 해방된 교회』, 권영석 역, (서울: IVP, 2005), 168.

8) 오늘날 “기독교 왕국”이라는 용어는 교회와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영역(공적 영역) 간에 발전되어 온 관계의 형태를 지칭한다. 보다 정확하게 이 용어는, 합법적인 확립을 통해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국가교회(state church)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북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교회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서로 타협하는 기능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기독교 왕국의 유산은 “기능적 기독교 왕국”(functional Christendom)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개념은 이전의 국가교회의 형태에서 특권을 누려오던 교회의 해체를 의미한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공식적인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교회가 취할 수 있었던 태도는 실용주의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국가와 타협을 하는 것이었고, 결국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기능적 기독교 왕국 개념은 미국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우파 진영(미국의 직접적이고도 깊은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도 이 범주에 든다)의 실용주의적이고 경영적인 신학과 교회의 삶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Darrel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48-55 참조.

9) John Drane, *The McDonaldization of the Church: Spirituality, Creativity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Ltd, 2000), 54.

선택과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궁극적인 것, 즉 하나님께 대한 책임성을 진지하고 강하게 인정하는 인간상을 낳았다. 계몽주의에서 나온 개인주의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책임을 강조한다. 미국적 신앙의 형태가 실용주의적인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자아추구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자아추구의 신앙은 사회문화와 타협을 거듭하며 신학의 중요성을 제거해 버렸다.¹⁰⁾

계몽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은 기독교 신앙을 사적 영역(신앙, 교회, 가정)에 가두고, 공적 영역(경제, 정치, 직장)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은 교회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일들보다 더 가치 있게 간주한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공적 진리로서 신앙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의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헌은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만 하며 세속적인 방식들과는 구분된 독특한 양식을 띠어야만 한다. 만일 인간이 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객관적) 진리가 없이 사적인 선택사양들만 존재한다면, 교회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것이다. 계몽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실용적 접근 방식과 효율성에 근거한 교회성장 논리나 대형화의 논리는 종교시장의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우고 목회와 신학을 마케팅 차원으로 끌어내린다. 만일 종교가 단지 인간의 내면적인 신앙에 근거한 희망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복음을 “현대 문화의 바벨론 유수상태”로 빠뜨린 것은 바로 교회가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세계관과 타협하고 결국 굴복했기 때문이며,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성경적 세계관과 유리된 현대의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종교는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유익한 기능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사람들은 개인적 체험이라는 사적 영역에 “영성”이라는 개념을 선호하기 때문에, 종교기관이나 공식적인 종교 교리라는 개념은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위협하다고 인식된다. “영성의 개념은 교리적 내용이 빠진 채 분석 가능한 어떤 역사적 주장들로 부터도 동떨어진 체험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¹¹⁾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신 개념도 점차 주관적으로 변한다. 개개인은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가장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치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를 시리얼을 고르듯이 선택하면 된다. 즉 종교는 선택, 생활양식, 선호의 문제로 사유화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기를 꺼려하며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교 제도의 변화가 초래되는데, “교회(church)와 종파(sect)는 교파(denomination)와 컬트(cult)로 변환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가 말하는 모든 것을 둘러싸 덮어주는 “신성한 덮개”(sacred canopy), 즉 보편적 종교로서 구성적으로 표상화 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종교적 뼈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 개념은 현대 세계(공적 영역)에서 더 이상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으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것이다.¹²⁾ 오늘날 미국에서 기업종교(entrepreneurial religion), 경험 치유적 종교(experiential-therapeutic religion), 자율적 종교(autonomous)의 형태를 띤 교회형태들이 부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들이 부상하고 있다.¹³⁾ 이러한 현상은 종교의 세속화로 인한 결과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오늘날 교회들은 기업적인 교회 확장과 치유적 영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율적 소비주의에 근거한 종교적 소비심

10) 데이비드 웰스, 『신학실증』, 김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212-214.

11) 낸시 피어시, 『완전한 진리』, 흥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228.

12) 그레이스 데이비, “유럽: 규칙을 입증하는 예외?” 피터 버거 편, 『세속화나? 탈세속화나?: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김덕영, 송재룡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09-110.

13) Rob Warner, *Secularization Theory and Christian Theology*. (Unpublished Material, 2007), 76-78 참조.

리에 근거한 자율적 영적 소비자들은 치유적 상품(예를 들어, 뉴에이지 테라피스트)들을 찾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욕구충족을 시켜주는 설교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들을 찾고 있다.

교회의 사회문화와의 단절은 단순히 수도원적인 은둔이나 소종파적인 자기격리가 아니라, 사회 문화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아 이지러지고 축소되고 혼합된 모습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대항문화로서 교회의 모형이 세상과 괴리되어 내부지향적이 될 요소가 있고 문화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성향을 띠므로 반문화적인 모습을 나타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의미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는 불가피하게 정치적이요,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수밖에 없다. 교회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충성의 문제를 다루며, 현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부차적인 일들이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의 의미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긴밀하고 강력한 사회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적이다. 그리고 돈과 자원의 청지기직과 관련되며, 어느 정도는 상호간의 경제적인 교류와 의무에 관여하게 마련이기에 경제적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일련의 나눔이 없는 '코이노니아'는 없었다. 교회가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지배문화]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도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저 종교 조직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령의 공동체이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을 맺은 것이다.¹⁴⁾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직”의 실천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선교사로서 이 세상의 지배문화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파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었다.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 나온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며 세상을 향한 파송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영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소집단 운동과 ‘안으로의 공동체’와 밖으로의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참된 인격적, 도덕적 공동체 형성의 모델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운동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⁵⁾ 특히 모더니즘이 낳은 개인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파편화된 공동체의 특성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은 선교의 역동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와 윌리엄 윌리몬(William Willimon)은 리처드 니이버(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에 나타난 단점으로서 “콘스탄틴주의”의 국가교회적인 약점을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즉 문화는 기독교가 세상과 얽히는 것을 승인해 주는 포괄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인식의 틀을

14) 하워드 스나이더, 『참으로 해방된 교회』, 권영석 역, (서울: IVP, 2005), 176-177.

15)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의 교회역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272-278 참조.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¹⁶⁾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교회 자체를 사회문화의 변혁적 동인으로 보면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본질적인 형태와 하나님 나라라는 명백한 목적으로 존재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은 레슬리 뉴비긴의 관점과도 유사하다. 뉴비긴은 “교회가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교회 자체가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가 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¹⁷⁾ 그러나 뉴비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으로 부름 받은 사도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정치, 경제적 영역 밖에서만 기능하는 것은 지배문화에 대한 참담한 패배이며,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본질적으로 거짓과 억압을 고발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공적인 고백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맥스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의 공공신학¹⁸⁾을 발견하게 된다.

IV. 공적복음과 공공신학

문시영은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을 통해 신학이 공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공개적, 이성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이며, 기독교 신학은 공적인 삶의 구조와 정책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야만 한다.”¹⁹⁾ 그는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과 하우어워스의 사회윤리의 통합으로서,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통해 탁월한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공공의 영역에 대하여 책임적 대안을 실천하는 은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또한 노영상은 공공신학을 한국교회에 적용함에 있어 기독교의 구원관과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즉 공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적용함에 있어, 그 이슈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논의가 되었는가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을 공적 영역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방법론의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²¹⁾

“하나님은 개인적이지, 사적이지 않다.”²²⁾ 윌리스의 이 주장은, 복음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 사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공적인 것이지 집합적인 것은 아니다. 개신교 신앙형태의 한계를 굳이 지적한다면, 개인적 신앙과 공적 신앙의 이분법적 접근이다. 복음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회심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음으로써 시작된다. 따라서 회심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현실과 분리된 사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회

16) 스탠리 하우어워스, 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56-57.

17) Leslie Newbigin,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Grand Rapids, MI: Eerdmans, 1991), 85.

18) “공공신학은 공적인 차원의 논의들이나 사회의 여러 영역들인 문화, 예술, 가족,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신학적 시도로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과학 등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신학 분야이다.” 이상훈, “신학해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서울: 북코리아, 2007), 30. 공공신학에 대한 주요 정의와 명제들, 그리고 비판적 반성에 대해서는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공공신학의 이해와 수용에 대하여,”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서울: 북코리아, 2007) 참조.

19) 문시영,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담긴 윤리적 통찰,”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서울: 북코리아, 2007), 100.

20) Ibid., 108.

21)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공공신학의 이해와 수용에 대하여,” 80.

22) 짐 윌리스, 『하나님의 정치』, 정성묵 역, (서울: 청림출판, 2008), 65.

심의 의미가 그렇게 이해된다면, 그러한 회심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회심의 의미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회심은 단순히 사적이며 초월적인 경험이거나 이론적인 말장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의 회심은 언제나 기존 사회문화라는 역사적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을 다룬다.²³⁾ 회심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필수요건으로서 신자의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 전 영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회적 리더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의 삶 그 자체이다.²⁴⁾

뉴비긴이 줄곧 주장하는 바는,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는 다름 아닌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 받은 자들로서 본래의 소명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주요 통로는 신자들의 일터이다. 그러나 예배와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²⁵⁾ 이러한 의미에서 만인제사장직의 본래적 의미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교회론적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즉 제사장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적 제사장직을 필요로 한다. 목회적 제사장직의 현장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모든 제사장들이 복음으로 구비되고 양육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구심점이다.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발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체는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집(가족 혹은 권속, oikos)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경제(God's economy)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그리고 영적인 문제 모두를 포함한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경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편협한 물질적 영역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경제라는 기본적인 개념과 모순을 낳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제란 경제적, 생태적, 영적인 실재의 통합이다. 창조 신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물의 회복이며,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물의 회복 과정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대행기관으로 핵심적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²⁶⁾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선한 청지기이며 만물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 청지기직의 개념은 창조질서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넓은 의미의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구원과 선교의 환원적 이해를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청지기직의 개념의 성경적 의미가 퇴색하여 십일조나 주일성수 혹은 교회행사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축소되어 왔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는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과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고 그의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청지기적 언약 공동체가 되어 간다.

23) 짐 윌리스, 『회심』, 정모세 역, (서울: IVP, 2008), 31-53 참조.

24)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438-442.

25) Ibid., 431-432.

26) 하워드 스나이더, 『참으로 해방된 교회』, 70-79.

V.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복음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증진을 위한 대안 찾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며 순례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건강한 목회자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중심에 서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편만한 반기독교적 정서와 비난의 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교회에 대한 부정 내지는 심각한 재고”이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소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고할 필요도 없다(여기서 교회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이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재고되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실성(충성)이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초대교회 운동, 중세의 수도원 운동, 경건주의 운동(특히 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에 의해 주도된 할레 선교운동), 청교도 운동, 18세기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 등은 대항문화적인 특성과 더불어 기존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변혁시킬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그 운동들의 공통점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회심에서 시작하여 지배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 정치, 경제 등 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데 있다.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과 리더십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에서 사역의 내용이 나오며, 교회의 본질과 사역의 내용에서 교회의 구조와 조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만 한다. 성경이 반복하여 말하는 회심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 즉 공적인 차원을 지닌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회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즉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저항력에서 나온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온다.

필자가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제기되는 질문은 한국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인 관점들은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들은 별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기되는 위기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신실하게 기독교 시민운동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소수의 단체들을 통해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소주의나 소영웅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변혁하려는 믿음과 희망을 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1974년 38년간의 인도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복음에 대해 차가운 떨시로 가득 차 있는 이교화된 영국사회의 모습에서 “희망이 소멸된” 서구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복음과 후기 계몽주의 문화 간의 “진정한 선교적 대응”(genuinely missionary encounter)의 긴박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²⁷⁾ 짐 윌리스는 모더니즘이 낳은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자들과 또 다른 자녀인 종교적 근본주의(혹은 종교우파 보수주의)에 대항하는 방식을 예언자적 신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언자적 신앙이 내건 싸움의 기치는 “냉소와 희망 사이의 선택이다.”²⁸⁾ 오늘날 한국교회 내부에서는 교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소멸된 징후”를 포착했다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분은 모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희망을 상실하고 자포자기의 늪에 빠진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윌리스가 주장하는 냉소주의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27) Leslie Newbigin, *Unfinished Agenda: An Autobiograph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243; 레슬리 뉴비긴, 「서구 기독교의 위기(The Other Side of 1984)」, 서정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7-8 참조.

28) 짐 윌리스, 『하나님의 정치』, 440.

냉소주의는 똑똑하고 비판적이며 한때 이상을 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은 은신처이다.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며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장밋빛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권위자의 말을 쉽게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타입도 아니다. 그들이 냉소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십중팔구 그들은 현실을 바꾸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다. 희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벌였으나 돌아온 건 실망감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운동에 동참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냉소주의를 선택했다. 궁극적으로 냉소주의는 부담감을 없애준다. 냉소주의를 선택하면 마음껏 자기 자신만 돌봐도 된다. 아마도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냉소주의자와 성자뿐일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현실을 어느 정도 부인하며 살아간다. 냉소주의자와 성자의 유일한 차이는 희망이다. 희망은 현존이며, 힘이며, 가능성이다. 그리고 참으로 영적·종교적 이슈다.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리고 이런 결단은 세상과 미래에 대한 깊은 확신, 곧 믿음에서 나온다.²⁹⁾

오늘날 정직하고 진실하게 목회현장에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이 교회의 희망이며 영향력이다. 또한 주변부에서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씨앗들이다. 현재 한국 개신교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중요한 방안은 윤리목회로 무장하는 것이다. 문시영은 윤리목회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목회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교회의 윤리가 시민사회의 윤리적 의식보다 탁월함을 보여야 하며, 윤리목회를 위한 두 가지 인식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과 “교회의 윤리적 탁월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한다.³⁰⁾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의 윤리적 탁월함과 복음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복음전도와 선교, 또는 교회성장은 목회자들의 말씀선포와 삶의 통합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단순히 빈곤, 환경오염, AIDS, 낙태, 사형, 전쟁, 불공정 무역, 인권문제, 인종갈등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짐 윌리스는 “관심은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오고, 긍휼은 관계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³¹⁾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른 여타 종교들이나 자선단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적 의미에서 긍휼(compassion)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위이다. 즉 주변의 가난한 자들이나 억압받는 자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한 동일시(empathy)를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의 카이로스를 이루는 것이었다. 성육신은 모든 목회자들의 궁극적 모델이다. 목회자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현 문화 속에 육화되어 살아가는가이다.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성공의 기준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계관적인 것이었다(마 20:20-34). 예수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응답은 한 가지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요한 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엇에 눈이 멀어 있고 그 눈먼

29) Ibid., 441.

30) 문시영, “반기독교 세력, 이렇게 극복하라,” 목회와 신학, 2008:1, 97-99.

31) 짐 윌리스, 『회심』, 정모세 역, (서울: IVP, 2008), 91.

상태조차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항상 주변부에서 살아가며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예언자적 소리”가 되어야만 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삼중직은 “하나님의 종”들은 왕, 제사장, 예언자였다. 이들 가운데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부류가 바로 예언자들이었다. 맥스 스타크하우스는 개혁전통의 괄목할 만한 기여는 “예언자직을 다른 두 직과 동격으로 재도입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³²⁾ 그는 예언자들이 당대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날카롭게 해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사회관계를 형성했던 부류였다고 말한다.³³⁾ 오늘날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이 바로 예언자적 정체성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왕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게 비추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변방에서 퍼져 올라오는 예언자적 외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우상숭배와 억압과 착취로 만연한 세상에 외쳤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것이 필요하다. 짐 월리스는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티핑 포인트”(The Tipping Point)를 인용하며, “사회 변방에 있던 아이디어와 제품 혹은 행동이 어느 순간 갑자기 광범위하게 수용되거나 소비되거나 실천되는 과정”에 대해 말한다.³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배문화에 속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소수”로 늘 존재하지만 “다수세계”(majority world)를 변화시키는 “티핑 포인트”를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문제와 직결된다. 교회의 정체성은 신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신학이 사회문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때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맥스 스타크하우스는 기독교의 소명과 청지기직의 개념을 공공선이라는 일반 도덕적 용어로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의 변혁을 위한 대안적 행동을 위해 기독교의 본질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공공선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실례를 1975년 워싱턴 D.C.에 “소저너스”(Sojourners)라는 잡지와 공동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빈곤 퇴치 운동을 위해 “Call to Renewal”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짐 월리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교회 내부로부터의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서 사회, 정치, 경제, 환경 등 글로벌 문제들에 대해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책임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공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공공신학의 개념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짐 월리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나 대안적 모델은 무엇인가? 그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단순한 시위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며 더 많은 노력과 창의력과 모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³⁵⁾ 즉 저항에서 대안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교회의 종교우파인 제리 폴웰의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와 팻 로버트슨의 “기독교 연합”(Christian Coalition)의 실패는 교회가 권력의 핵심부와 “타협”했는 데 있다. 교회가 주변부에서 윤리적 정직성과 청렴성으로 무장하여 권력의 핵심부나 경제적 기득권층을 향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32) 맥스 스타크하우스, “소명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서울: 북코리아, 2007), 19.

33) Ibid.

34) 짐 월리스, 『하나님의 정치』, 349.

35) Ibid., 82.

짐 월리스의 소저너스, 그리고 콜 투 리뉴얼 운동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제반영역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운동 자체가 복음에 기초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를 향해 “예산은 도덕적 문서다”라고 외치면서 전 세계의 빈곤 해결을 촉구하며, 부정한 기업들에 대해 “죄”의 실상을 제시하고, 가족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정무역(fair trade)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 등은 주변이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다름 아닌 교회 내부의 문제 즉 목회자의 소명과 청지기 의식, 그리고 목회윤리의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심이다. 회심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대행자인 성령에게 있다. 지금은 교회가 종교의 사사화의 덫에서 벗어나 교회 내부를 향한 외부의 비판적 목소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만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개인적 문제는 교회내부의 문제들 뿐 아니라 대사회적인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목회자 개인들은 성적인 문제, 금전문제, 명예나 권위의 문제 등이며, 교회 내부적으로는 헌금문제, 교단정치문제, 목회자 세습, 교회건축을 통한 외형적 확장, 해외선교의 방식제, 대형교회의 문어발식 확장, 신학교육과 목회자 과다배출, 목회자의 학위의 진정성, 이단/사이비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목회자 개인과 교회 내부의 문제들은 목회자의 납세, 교회의 정치참여, 주차장으로 인한 갈등, 목회자의 박사학위, 등으로 확산된다.

오늘날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이 스타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많은 스타목회자, 스타 부흥사, 스타 신학자, 스타 CCM 가수, 스타 상담가, 스타 저술가가 기독교 방송매체들을 장악하고 공영방송 매체까지 진출하는 현상은 오늘날의 지배문화의 첨단 연예산업에 물든 천박한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영웅들,” 즉 진정한 “역할모델들”은 찾아볼 수 없고, 스타들만 즐비하다는 것이다. 기독교 매체들과 기독교 출판사들까지도 국내외 스타 목회자들과 스타 저술가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가 수용하기 벅찰 정도로 많이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모델로 삼아야 할 대상들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은 스타들을 따르는 가운데 본질에서 비 본질로, 복음의 선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좋은 신학에서 나쁜 신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건 하나님의 “어릿광대들”이었다.


존 드레인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배문화의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하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어릿광대로서의 이미지를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로 묘사한다. 예수의 이미지는 고난과 박해의 와중에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목자였고, 중세의 암흑기에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이었으며, 계몽주의의 비전에 고취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한 랍비로,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의 모습은 어느 한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어릿광대의 이미지가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어릿광대 이미지가 정치경제적 현 상태에 대한 급진적이며 혁명적인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어릿광대는 기쁨의 상징으로서 단순성을 구체화하고 삶 가운데 발견되는 즐거움을 알려준다. 어릿광대는 희망의 상징으로서 불가능한 것이 언젠가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다. 복음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가장 신랄하게 논증하는 자가 바로 어릿광대이다.³⁶⁾

어릿광대들은 우리의 '죄들'(불합리함과 위선 등)을 짚어지고 그것들을 변혁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된다는 의미의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며, 다른 이들과 함께 기쁨과 고통과 두려움을 나누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를 향하는 것이다. 예수는 약한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예이다. 비록 예수가 세상에 도전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거부되고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어릿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릿광대는 권력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예수처럼 약자의 처지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므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다.³⁷⁾

VI. 결론

문화는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 문화의 중심에는 영적 가치가 존재한다. 문화가 형성되는 그 중심에는 문화적 아이콘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역할모델"이라 부른다. 교회가 문화를 변혁하는 모델들을 제시하고, 목회자들이 바로 역할모델이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회심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력은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과 신학이 공적인 장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회적 제사장들인 목회자들의 품성에서 우리나라의 윤리적 탁월성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윤리문제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회심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적 소명의식을 회복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특히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에서 복음의 자신감을 드러내야 한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신자들이 진리를 대면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세상에서 부름 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목회자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강단에서 전달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윤리적인 삶 자체가 영성으로 신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또한 부상하는 세대들의 신학교육은 기독교적 윤리와 영성을 바탕으로, 세상적인 가치들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소명을 받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들은 교단 권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기보다는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신학교 교수들의 역할은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변화의 동력과 신학적 동인들, 그리고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변화의 대행자(change agent)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윤리적 갱신과 포괄적인 교회갱신은 근본적이며 급진적인 성향을 필요로 한다. 목회자들의 회심은 "삭개오의 회심에 따른 행위들"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급진적 갱신의 행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급진적 제자도(radical discipleship)의 모습이며 산상수훈적 윤리의 이상이다. 목회자의 제자적 수행은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6) John Drane, *The McDonaldization of the Church: Spirituality, Creativity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127-128.

37) Ibid., 132.

논찬 2

2차 기운실
목회자리더신포럼

김 현 진 목사
사권의교회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

소개

기윤실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실천적인 윤리운동이며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여러 기독교 NGO의 산과 역할을 하며 작은 섬김을 하여 왔습니다. 기윤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그 동안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요, 평신도의 자발성을 기본 동력으로 성장하여 온 기윤실 운동에 목회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건강한 목회자 운동을 시작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도덕적 회복과 체질개선, 이를 통한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은 목회자의 자기 갱신과 리더십 문화의 변화를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은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섬기는데 작은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와 교회 운영에 있어서의 윤리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포럼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영적 도덕적 각성을 주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운동, 목회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운동, 목회자를 참여시키는 운동을 지향하며 우리 시대에 맡겨진 작은 소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1. 비전(Mission Statement)

기윤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은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에 입각한 바른 교회 건설과 건강한 목회의 비전을 실천하는 현장목회자의 운동으로서, 성경적 리더십 원칙과 도덕적 탁월성 및 영적 지도력을 지닌 목회리더십에 대해 연구, 계몽하고 이를 선언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참여 네트워크입니다.

2. 기본정신

1) 기윤실의 정신과 강령

기윤실의 정신과 기본적인 고백에 기초하며, 이를 이론과 실천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2) 성경적 리더십 원칙

일반 경영리더십 이론이나 통속적 목회론이 아닌 성경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성경적 도덕적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지향합니다.

3) 교회와 목회의 도덕적 Integrity

교회운영과 목회사역에 있어서 실용성과 외면적 성장에 앞서 정직과 성실, 겸손 및 헌신 등 근본적인 리더십 원칙을 지켜나감을 이론적 실천적 우선순위로 합니다.

4) 영적 리더십과 영향력

건조한 리더십 연구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교인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함께 성장하고 사역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활동내용 : 연구, 계몽, 선언, 참여(변화)

1) 연구

① 목회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 기본적 연구(혼)

리더십 원칙, 영적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성품 리더십, 목자 리더십, 아가페 사랑.

②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에 대해 : 중추적 연구(뼈대)

교회의 본질, 제자도, 지역에 뿌리 내린 교회, 도덕적 정신적 탁월성을 지닌 교회, 비영리법인의 운영원리, 교회 시스템론 등 교회성장론이나 시대적 유행을 넘어선 본질에 대한 탐구.

③ 한국교회와 사회에 대해 : 외연적 연구(몸)

한국교회와 이 교회가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로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론과 총체적 선교의 비전과 통찰력이 요청되는 영역.

신학적, 선교적, 목회적, 종교사회학적, 문화적 접근 등 입체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

④ 목회 원리와 프로그램에 대해 : 실천적 연구(활동)

원론만 나열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경적 목회의 핵심 원리와 현장에 실제로 응용 실천할 수 있는 목회 프로그램, 모범 사례, 실천적 아이디어 등을 연구, 수집, 제공.

2) 계몽

한국교회 목회자를 포럼이 시행하는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 등에 참여시켜 교육함. 그 내용과 성과를 자료화하여 보급함. 기독교 매체, 언론 등을 통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 교육, 계몽함.

3) 선언

포럼의 결과와 연구의 열매, 그리고 교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적절한 선언문을 발표.

예 :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 강령, 한국교회 평신도 생활윤리 지침, 이슈에 따른 선언 등.

4)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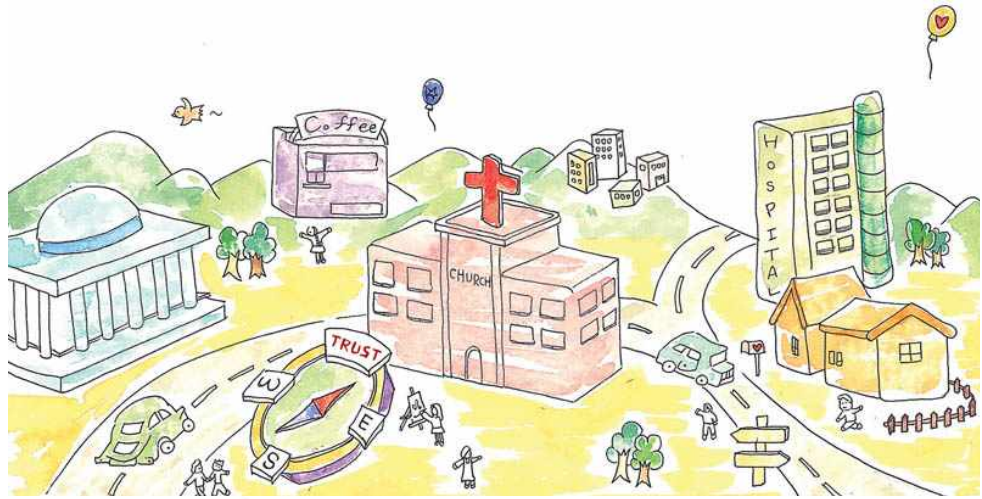
기윤실 운동과 목회자 리더십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는 목회자를 네트워크화 함

목회 현장에서 목회의 변화와 역동성, 그리고 건강한 열매를 추구함

4. 섬기는 사람들

리더십포럼은 기윤실의 교회신뢰운동의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현장성, 초교파, 윤리성, 영향력, 네트워크' 등의 조직원리로 현장목회자와 학자 등으로 운영 및 연구위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은혜 목사(숭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현진 목사(사귌의교회), 이상화 목사(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조성돈 목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 황영익 목사(서울남교회) 등이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원실 목회사 리더십 프로그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 02-794-6200

팩스 | 02-790-8585

이메일 | cemk@hanmail.net

홈페이지 | www.trusti.kr

